신수 괴기한 쌍휘의 두 구쇼운

서방의 상제 소호의 본신으로 금성의 환수 호랑이 형태로 새들과도 마음이 통했기에 빛을 바라보며 직접 큰 발자국을 남겨 어진 왕들의 탄생을 알렸다.